

[TV]

단한번 만난 이상형 여인 찾는 로맨틱 코미디

시네클럽 '온 더 라인'(SBS·21일 새벽 1시15분)



전철에서 단한번 만난,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여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심한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미국 최고의 5인조 인기그룹 '엔싱크(NSync)'의 멤버들인 랜스 베스와 조이 파원이 주인공 커플을 연기하면서 극영화에 데뷔했으며, 연출은 TV 출신의 신예 에릭 브로스 감독이 담당했다.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착실히 생활하고 있는 순진남, 케빈은 마음에 드는 여자 없애면 서면 온몸이 얼어붙는다.

어느 날, 전철에서 맘이 잘 틀리는 이상형의 여성, 애비를 만나지만, 전화번호는 커녕 이름도 못 물어보고 헤어지는데... 이상형의 여성을 그냥 보내버린 못한 자신을 자책하던 케빈은 시카고 시내 곳곳에 그 여성을 찾는 단단지를 붙인다.

이것을 본 수많은 여성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도 로맨티스트가 남아



아 있었으며 큰 관심을 쏟고 심지어 케빈이 남긴 전화번호로 연락하기도 한다. 케빈에게는 못 말리는 친구 로드, 애리, 랜디가 있다. 세 친구는 빗발치는 여성들의 전화를 받아 자신이 케빈이라 자칭하며 데이트를 즐기기도 시작한다.

새롭게 출발한 '사랑과 평화'는 곧 8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등 떠밀려 하이틴 모델 대회 참가

성경드라마 '최강 울엄마'(KBS2·오전 8시 55분)=보라에게 등 떠밀려 하이틴 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하는 은기. 생각지도 못한 1차 합격을 하며 얼떨결에 본선 진출을 준비하게 된다.

돌시인과 사랑하는 어머니

휴먼다큐멘터리 '사랑'(MBC·밤 10시50분)=돌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박진식(40세)씨, 석회화작용으로 온 몸이 마네킨처럼 굳어가는 그에게 의사는 스무 살까지만 살 거

라고 했다. 박진식씨는 그에게 허용된 삶보다 꼭 두 배를 살아내어 올해 마흔이 되었다. 돌시인 옆에는 지난 30년 동안 한결같이 그를 간호해온 어머니 조순(61세)씨가 있다.

보물 찾아 황금도시 열도라도로



웰컴 투 더 정글(XTM·오후 5시15분)=채무 관계의 전문해결사가 정글의 보물을 찾아 모험을 벌이게 되는 버디 액션물.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을 지녔지만 인젠가는 근사한 레스토랑을 여는 게 꿈인 최고의 회수전문가 백, 단 한번의 실패도 없는 경력을 자랑하는 배태랑인 그에게 최고의 위기가 될지도 모르는 의뢰를 받게 된다. 배일에 쌓인 보물을 찾겠다고 정글로 간 트라비스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백은 위험천만의 황금도시 열도라도로 떠난다.

TV 하이라이트

30년의 관록이 묻어나는 음악



스페이스-공감(EBS·밤 10시)='사랑과 평화'는 1977년 당시 미8군 무대에서 활동하던 이남이(배이스), 이철호(보컬), 최이철(기타) 등 6명의 최고 뮤지션이 의기투합해 만든 그룹이다. 이들은 웅장하고 섬세한 연주의 편곡으로 '한동안 뜸했었지', '잠미'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국제보청기... 창업25년... 오래된 보청기(스타키) 보상판매 30%... 견전지(뱃데리) 가격인하... 본점 (동구청 남동성당사이) (062) 227-9940... 총점장 (금남공원앞) (062) 225-9970

케이블·위성TV 20일

Table with columns for various TV channels including YTN, MBN, KTV, SBS, MBC, KBS, and others, listing program titles and times.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Table showing TV schedule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channels.

*케이블 TV 가입신청 및 문의 080-398-3355(전국공통)